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2일 월요일 음 9월 23일(조금)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 주	10%
60%	성 산	10%
60%	고 산	10%
6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11/20℃
모레	구름많음	14/21℃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7℃, 낮 최고기온은 19~21℃로 예상된다.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질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해뜸	06:53	달뜸	—:—
해짐	17:41	달짐	13:44
물때	만조 04:02 17:50		간조 10:31 —:—

자외선지수 보통 /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트럼프 "바이낸스 해킹 北 소행이면 대화할 것"

질문에 "확인 중… 걱정 안 해"


31일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 해킹이 북한 소행이면 북한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자택에서 "알아보고 있다. 걱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과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60억 달러 가상화폐 탈취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표적이 남아 있다며 재공격을 위협했다. "한두 곳은 아직 처리해야 하지만, 10분이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 핵시설 곡괭이산을 거론하며 "아주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그다지 믿을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MS나우는 미국이 걸프 동맹국들에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 공습에 대비하라고 알렸다고 보도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어떤 수준이나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지리적 제한이 없는 대응"을 군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월요논단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주건축가들의 고군분투기

요즈음 건축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설계비는 십수년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설계사무실의 경영에 고전하는 고군(孤軍)의 건축가 모습이 읽힌다. 동시에 최근 한국건축가협회 주도의 프랑스 파리 건축전시회 개최 소식도 전해진다. 국제적인 교류기회가 많지 않은 제주건축가들에게 전시장소와 내용에서 뜻깊다. IMF와 코로나19 시기 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현시점에 자비를 들여가며 건축전시회 작품을 내는 것은 개인 활동이자 넓게는 건축가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이어 가려 분투(奮鬪)하는 활동영역의 확장이다.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0월 8일 자 '이슈와 논점-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 브리핑자료는 매우 흥미롭다. 2005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구성,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나도 건축 걸작이 없는 이유의 분석이다. 그 요인으로 (1) 건축문화 및 건설기술에서의 프로젝트 기획능력 부족, (2) 사업고려 없는 획일적인 발주방식, (3) 설계자 선정의 경직성 및 설계대가 미흡, (4) 건축가의 체계적인 참여 부족, (5)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관리, 감독의 미흡을 들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기획 능력은 단기간에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외 교류를 통한 '가치공유'와 '고도의 전문화' 방안이다. '가치공유'는 건축가와 일반시민, 국가와 국가의 공유를 통해 건축의 다양한 가치를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조사와 발간, 전시와 토론, 참여와 연대의 방식으로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공유 형태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유의 기반을 건축가 개인과 집단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져 행정이나 지역사회로 재확산시켜 제주의 미래건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화 내지는 사업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은 새롭게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과 조직을 재편하여 활성화 가능할 것이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일본 등에 개설한 해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활용도 가능하다. 물건을 파는 차원을 넘어 문화와 사람을 매개로 하는 신교역사업화로 다각화하는 것이다. 이들 문화산업 전지기지를 통해 문화와 전문인력에 의한 교류 다각화를 시도해 가는 것이다. 아울러 격년제 제주비엔날레의 준비 연도에 건축교류와 전시를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제주포럼의 섹션에서 격년제로 국내외 건축이슈를 다루는 등 정해진 예산의 틀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교류기금 조성을 통해 젊은 건축가들이 폭넓고 다양한 주제로 국제교류를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 역량을 갖지 못한 채 교류라는 미명 아래 외연적 확대의 비판도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 내실화의 문제이며 어려운 현실 속에 고군분투하는 제주건축가 집단의 활동 확대가 기대된다.

열린마당

140개의 메달! 제주 체육 한계를 넘어 미래로!



강 경 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선수단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14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성취상 1위를 수상했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가 50개 종목에 1640명의 선수를 파견해 424개의 메달을 얻은 것과 비교할 때, 얇은 선수층과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거둔 값진 성과다.

이번에 거둔 140개의 메달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70만 도민에게는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 "1%의 한계를 넘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체육인들에게는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흘린 뜨거운 땀방울의 결실이다.

이 140개의 메달은 비바람과 폭염에도 굴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훈련하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선수들의 성실한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다.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선수들과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한 종목단체의 열정 역시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유산이다.

제주체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도, 수영, 육상 등 기존 강세 종목의 기반을 확인하고 신예들의 활약을 통해 제주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증명했다. 140개의 메달은 제주체육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제 제주체육에 남겨진 과제는 두터운 선수층 양성과 지속 가능한 훈련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체육회와 행정,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

도민의 안전, 112가 먼저 응답하겠습니다



고 민 수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감

최근 발생한 실종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위험이 찾아왔을 때, 도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가 바로 '112'이다.

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112 신고는 1957년 비상전화기 설치를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12년 수원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신고 접수부터 위치 확인, 현장 출동까지 대응체계가 개선됐다. 이후 119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상황팀장 총경급 격상 등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스템이 발전하더라도 경찰의 노력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는 없다. 안전한 사회의 출발점은 이웃을 향한 관심과 공동체의식이다. 주변의 다급한 목소리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나친 작은 신호가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구조 요청일 수 있다.

아울러 개 짖는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일반 생활민원은 국민콜 110이나 해당 지자체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범죄나 인명피해의 위험이 의심된다면 망설임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신고와 생활민원을 구분하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

안전한 제주는 경찰의 노력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함께할 때 완성된다. 112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도민의 불안에는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먼저 응답하겠다.



